

| 경기도

■ 안산시, 닭·오리고기 등 포장유통 특별점검 실시

안산시 상록구는 시민들의 소비가 급증하는 닭·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과 연계해 관내 400여개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사항은 ▲포장제품 보관·판매 및 개봉 후 재포장 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적정 보관 판매 여부 등의 위생감시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대상 업소 중에서 유통이 활발한 중·대형마트, 유통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밀집지역 등을 집중 점검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충청남도

■ 2012년 하반기 가축통계조사 실시

충청남도는 오는 12월 21일까지 도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1월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주요가축 4종과 ▲말, 산양, 사슴, 오리, 꿀벌 등 기타가축 17종으로 총 21종이다.

사육두수와 사육농가수 등 가축사육 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축산 정책수립 및 가축방역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군별·사육규모별·연령별·성별 마리수 및 농가수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위해 가축통계조사 담당 공무원이 동(리)별 담당조사원을 지정,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장주 또는 사육자 면접청취 및 확인조사를 한다.

도 관계자는 “가축통계 자료는 축산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축산 농가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충청북도

■ 철새 유입시기 맞아 시 방역 강화 추진

충청북도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를 맞아 ‘조류인플루엔자 청정도’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금년도에도 방역대책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도부터 전국에 걸쳐 4차례 59개 시·군에 발생하여 2천5백만 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으며, 충북도는 2004년도부터 AI 비발생 청정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도는 시베리아 및 중국 등에서 서식하던 가창오리와 같은 철새 집단이 11월 중에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며, 최근 AI 상시예찰결과 주요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서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다수 검출되었기 때문에 방역대책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11월 들어 미호천에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확인되는가 하면, 금강하구연과 익산 만경강 일대의 철새분변에서 고병원성으로 전이될 수 있는

H5, H7형 A 바이러스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과거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전염경로가 철새에서 닭, 오리농장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보고, A 일괄 모니터링 감시와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야생조류 서식지를 중심으로 출입제한, 정기적인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미호천을 중심으로 각 시군별 주요 철새서식지에 대해 주 1회 공공소독을 실시하고, 시군별 주요 냇시터, 저수지 등에 대해서도 출입금지를 홍보하는 한편,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소독 지원반을 편성해 시군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에 순회 소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농가에 대해서는 오리·닭의 A 바이러스 항병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면역 증강물질 120톤을 지원해주었으며, 농장 관계자들은 철새서식지 방문 금지,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농장 내 야생동물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줄 것과 외출 후에는 반드시 신발과 의복을 세탁 또는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할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

■ 야생 조류 서식지 등 A 사전 검사

전북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 11월 26일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오는 12월 19일까지 야생 조류 서식지 등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는 종오리, 육용오리 등 가금류 농장은 물론, 철새 도래지 주변과 공항만 주변 야생 조류 서식지 등 A 발생 위험이 높은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축산위생연구소는 검사 시간 종오리 농장 23호, 육용오리 농장(20수 이상 사육농장) 180호에서 사육 중인 오리 420만수, 메추리, 꿩 등 기타 가금류 20만수의 시료를 채취해 항원 및 항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종환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오리는 닭과 달리 임상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A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서는 사전 예찰과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류 사육 농가는 고병원성 A 발생지역 국가 여행 자제, 소독 및 차단방역 강화 등에 노력하고 의심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 축산농장 질병관리 등급제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장 질병관리 등급제’를 시행한다.

질병관리 등급제는 소·돼지·닭·오리 등 가축 농장별로 질병과 방역 관리에 대해 평가한 뒤 등급을 매겨 그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제도다.

도는 우선 내년 1월 종축장과 전업농가 중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등급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어 내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모든 농장과 마을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질병 관리의 전염병 비발생 기간·예방 접종 이행, 방역 관리는 소독 설비·소독 시행·방역 일지 작성·방역 교육 이수 등을 평가한다. 배점에 따라 종축장은 1~5등급, 종축장이 아닌 농장은 1~4등급으로 차등화한다.

평가 결과 상위 등급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비·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소독약품 및 장비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그러나 하위 등급 농장은 보상금을 낮춰 지급하고 방역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

한편, 제주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에서 지난달 가축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중국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 축산미생물제제 검사 결과 내년사업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로 매년 추진되고 있는 '축산환경개선사업' 지원 제품에 선정돼 축산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냄새저감용 미생물제제 13개 제품의 품질검사와 더불어 행정처분 내역 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3년도 지원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냄새 및 해충 발생 방지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제를 농가에 공급하고 사료에 혼합하여 급여함으로써 가축분뇨 냄새 저감과 사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비육우, 젖소, 돼지, 닭 등 제주시 150만두(수), 서귀포시 25만두(수) 등 모두 175만두(수)를 대상으로 총 5억7500백만원을 투자해 미생물제제(효모 및 균제)를 구입 공급했다.

도는 올해 지원 제품으로 선정돼 축산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환경개선제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상시 품질관리 이행 여부를 판단키 위해 사료검정인정기관에 사료검사를 의뢰했다.

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도 지원제품 선정에 적극 반영해 나아가고, 품질검사에서 기준 함량이 미달되거나 행정처분된 경력이 있는 업체는 지원사업 참여를 중단시키는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13년 만에 삼계탕 미국으로 다시 수출

내년부터 삼계탕이 다시 미국에 수출될 전망이다.

미국은 1999년 한국 양계농가의 뉴캐슬병(호흡기, 소화기, 신경 장애를 몰고 오는 바이러스 전염병) 폐사율이 높다는 이유로 닭고기와 삼계탕 등 닭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1월 30일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산 가금육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미국 관보의 시행규칙 개정 제안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산 닭고기, 닭 가공품 수입을 재개하는 미국 정부 내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뜻으로, 의견 수렴 기간인 내년 1월 28일까지 특별한 반대 의견이 보고되지 않으면 시행규칙개정 최종안이 제정된다.

이게 시행되면 미국 정부는 한국을 가금육 수입 허용 국가로 승인하게 된다. 현재 2개 삼계탕 제조업체(고향삼계탕, 즉석삼계탕)가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현지 교민을 중심으로 삼계탕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형완 aT 뉴욕지사장은 "다른 축산물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